

셔츠와 타이의 배색방법에 따른 남성복의 인상 평가 (제1보)

- 보라, 초록색의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

The Impression Evaluation according to Coloration of Shirts and Ties (I)

- On Tone-on-Tone Coloration of Purple and Green -

임지영* · 강경자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Ji-Young Lim* · Kyung-Ja K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various impressions that tone-on-tone coloration of shirts and ties gives. This experiment was based on the 2×4×4×2 factorial designs; colors (purple and green), shirt tones (vivid, light, dull, and dark), tie tones (vivid, light, dull, and dark) and perceivers' genders (male and female). The materials in the experiment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composed of various stimuli and the response scales for each stimulus. The stimuli were 32 upper body photographs, which were color printed by CAD system (4D-box program). We unified those colors of shirts and ties, and then made shirt and tie tone different. 27 bi-polar adjectives, each of which was graded into seven in its degree, were used to evaluate the impression.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192 male and 192 female college students in Gyeongnam province including Jinju City.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program. Analyzing methods were one-way ANOVA and LSD test. The items of the adjectives were classified into 5 impression dimensions; potency, activeness, attractiveness, visibility and tenderness. In conclusion the impression through matching shirts and ties could be varied by the colors and the tones of shirts and ties.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basic color data in the males' clothes market which gradually pursues high-quality, personality, and variety.

Key Words : impression evaluation, tone-on-tone coloration, shirt, tie

I. 서론

최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여성복 못지않게 남성복이 점차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를 추구하게 되어 신사복 시장으로 일컬어졌던 남성복 시장이 포멀정장 뿐만 아니라 캐릭터 정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남성의 정장색은 검정, 회색, 갈색 등으로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 남성복 착용자의 개성을 살리는데 셔츠와 타이의 코디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셔츠와 타이를 코디할 때는 디자인상의 변화가 크지 않으므로 주로 셔츠와 타이의 배색 즉 2색의 배색에서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배색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하나의 색만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얻는 것으로 조화로운 색

사용으로 인한 다양성의 통일로 아름다움의 완전성을 구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배색 시에는 단색보다는 두 색이 조합되면 표현범위가 넓어져 두 색 이상의 조합에서 주는 인상은 단색에서 주는 인상보다 감정가치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추선형, 김영인, 1997).

색채의 조화는 3개의 속성에 의해 조작되지만 색상, 명도, 채도의 차이가 그 기초가 된다. 그러나 배색방법에서 어느 유형이 조화로운 배색인가는 단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같은 색상의 배색이라도 주색채와 부색채의 명도대비 정도에 따라서 의복전체의 느낌이 다르게 되고 동일한 의복형태도 색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가 다르게 된다.

형태는 어떠한 전환에도 불구하고 특성들의 조합이라고 정의 할 수 있고 사물의 동일성에 대한 접근은 형태 주의의 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형태를 이

* Corresponding author: Ji-Young Lim
H.P: 011-615-1012
E-mail: cloth1012@hanmail.net

루는 특성 중 색 및 윤곽선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이들을 어떻게 조합시키는데 따라 지각되는 사물의 이미지는 달라진다(이혜숙, 김재숙, 1996).

복식에 있어서도 이러한 영향에 의해 다양한 단서들이 중심특성으로 작용하거나 주변 특성과 상호작용하여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이은미, 강혜원, 1994; 남미우, 강혜원, 1994; 강경자, 임지영, 1996)에서는 남성복의 색상과 넥타이 또는 여기에 무늬를 조합시켜 이들 변인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바 있고, 그 외 색상과 톤조합에 따른 인상평가(김윤경, 강경자, 2003; 최수경, 강경자, 2004)나 톤 인 톤이나 톤 온 톤과 같은 배색방법에 따라 조화감을 평가한 선행연구(강경자, 2001, 2002, 2004)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여성복이나 한복배색에 한정되어 이루어져 남성복의 배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배색방법에 따른 인상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행색이면서 난색계 중성색인 보라와 한색계 중성색인 초록을 선정한 후 셔츠와 타이에 각기 색상은 동일하게 하고 톤을 달리한 즉 명도에 변화를 준 다수의 톤 온 톤 배색을 보여주고 이들 톤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차원이 어떤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들 단서들에 의해 착용자의 인상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셔츠와 타이의 톤조합에 따른 인상차이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어 복식산업체에서 색채기획시 실증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배경

색은 감각기관 중에서는 시각으로 밖에 파악하지 못한다는 고유의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단순히 시각적인 전달을 할 뿐만 아니라 시각을 통하여 다양한 감정을 일으키므로써 특수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색채의 감정적인 효과는 온도감, 중량감, 화려함과 수수함, 흥분과 침전, 경연감 등의 수반감정이 따르며, 이는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 기본적인 색채반응에 관계한다(박상호, 1994). 각 색상에 있어서 명도는 무게감과, 채도는 강약감과 관련되는 데 두 속성이 동시에 고려되는 톤은 경연감을 준다. 따라서 색상이 지니는 톤에 의해서 같은 색상이라도 이미지가 달라지며(추선형, 김영인, 1997), 색채이미지는 시대와 사회적 상황, 개인적 특성에 의해서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小林重順, 1990).

색과 무늬의 이미지 지각은 자연물의 이미지 영향이나

개인의 정서적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이혜숙, 김재숙, 1996). 보라색은 색채표현의 특성상 양성적인 성격의 빨강과 음성적인 성격의 파랑이 합성되어 중성적인 감정을 수반하며, 색조별 보라색 복식 이미지를 보면 비버드(v)는 성숙하고 호화로운 고급스런 이미지, 라이트(lt)는 온화하고 섬세하며 품위있고 우아한 이미지, 달(d)은 수수하고 세련된 침착한 어른의 이미지, 다크(dk)는 격조·침착함·안정감이 있는 남성적인 이미지로 분류하였다(김은경, 김영인, 1999). 초록색은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는 색상환에서는 풀색, 녹색, 초록, 청록으로 범주를 정하고 있고, 초록의 일반적인 색채 이미지는 자연, 젊음, 성장, 자연보호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달되며 동시에 악운이나 기이함 등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복식에 표현된 색채이미지는 자연보호와 관련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젊음의 이미지와 같은 녹색의 긍정적 이미지가 복식에도 적용되고 있다(추선형, 김영인, 1997).

의복색은 의복착용자에 대한 지각과정에서 심리·생리적으로 작용하여 색이 가진 특수한 이미지에 의해 지각하게 하므로(박은주, 1989), 일반적인 색채이미지와 의복 이미지는 연관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차미승(1992)은 보라색은 성숙한 이미지로 나타났으며 또한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주수현, 이경희(2002)의 현대패션의 색채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보라와 초록은 활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색상의 톤과 관련한 인상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상차원은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온유성, 활동성 등이 도출되었고, 의복스타일과 색상, 톤조합에 관련한 연구(김윤경, 강경자, 2003)에서는 라이트/라이트, 다크/다크의 조합일 때 품위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색상과 톤, 스커트폭·길이에 따른 인상평가(최수경, 강경자, 2004)에서는 능력·활동성요인, 품위성요인에서 빨강의 다크톤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고 능력·활동성 요인에서는 스커트폭에 상관없이 스커트길이가 짧은 경우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으며 품위성요인에서는 색상과 톤에 상관없이 원피스드레스의 스커트 폭이 좁고 길이가 긴 경우 높게 평가되었다. 의복의 톤조합과 체형에 따른 인상평가(팽숙경, 강경자, 2004)에서는 온유성, 귀염성, 매력성, 품위성, 대담성의 5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온유성차원에서는 체형의 영향이 크고 전체적으로 모든 체형에서 다크/다크의 조합은 신경질적이고 독선적인 인상을, 라이트/미디움과 미디움/라이트는 온유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염성차원에서는 5가지 체형 모두 톤조합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매력성, 품위성차원에서는 모든 체형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대담성차원에서는 표준체형만이 톤조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톤 온 톤 배색과 조화감에 관한 연구에서 강경자(2002)는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톤 온 톤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평가시킨 결과 한국여대생은 상하톤차이가 나는 배색을, 미국여대생은 상하 같은 톤의 배색을 보다 조화된다고 평가하여 조화에 대한 판단기준이 문화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강경자 외(2005)는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 한복배색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조화감 비교 연구에서 초록색의 경우 저고리에는 라이트나 비비드와 같은 밝고 선명한 톤이, 치마에는 덜이나 다크와 같은 어두운 톤이 배색되었을 때 조화로운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비비드-라이트, 덜-다크의 톤조합은 색상면적비에 상관없이 조화로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색상과 톤이 분리되어 지각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화된 전체로 지각되어 색상만으로 또는 색상의 톤만으로 인상평가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남성복의 인상(이은미, 강혜원, 1994; 남미우, 강혜원, 1994; 임지영, 강경자, 1996; 이향미, 김재숙, 1998; 최유진·이명희, 2004)에 관한 연구에서 남성복의 인상차원은 활동성, 매력성, 평가성, 능력성, 현시성, 품위성, 남성성 등이 도출되었고, 각 단서들은 이들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감색의복이 평가적 차원에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지적이고 예의바르며 신뢰감이 드는 것으로, 적벽돌색 의복은 사교적 차원에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밝고 편안하며 친근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란색 셔츠와 파란색 재킷 그리고 파란색 넥타이가 배색될 때 능력있고 매력있게 평가되었다. 매력적인 이미지에는 넥타이무늬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독특한 이미지에는 추상무늬나 감색의복에 대비된 색의 꽃무늬, 페이지즐리무늬 넥타이가 효과적이고, 능력있는 이미지에는 감색과 베이지색의복에 유사한 배색의 무늬, 특히 줄, 페이지즐리, 체크무늬의 넥타이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색상의 캐주얼이 유행색상의 캐주얼보다 더 활동적으로 평가하였고 대학생집단은 면접이나 정장에서 유행색상은 더 활동적으로 지각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색상이나 톤이 다르게 조합되었을 때 조합정도에 따라 착용자의 이미지나 인상은 다소 다르게 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색과 톤에 따른 배색방법에 따라 평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나 한복이나 여성복의 배색의 조화감에 한정시켜 이루어졌으며 남성복의 연구에서는 색상과 넥타이 또는 여기에 무늬를 조합시켜 이들 변인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바 있으나 색과 톤의 조합에 따른 배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물론 이들 톤조합에 따른 인상평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남성복에서 색상이나 톤을 다르

게 조합한 다양한 배색 방법에 따른 인상차이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셔츠와 타이가 조합된 자극물과 이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로 구성하였다.

1) 자극물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셔츠와 타이를 착용한 20대 남성의 허벅지 중간까지 제시된 상반신 사진으로 자극물의 모델은 20대 우리나라 남성의 기본체형(사이즈코리아, 1997)의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얼굴과 헤어스타일, 바지는 통제하였다.

자극물 제작은 Digital Camera로 모델을 촬영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부드럽고 흐린 얼굴로 사진을 수정하였으며 주 작업은 CAD system(4D-Box Hi-Print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컬러프린트기로 출력하였다.

자극물 색상선정을 위하여 2004년 1월에서 5월에 걸쳐 백화점과 할인마트, 로드샵을 방문하여 넥타이의 색상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빨강, 파랑 계열을 기본으로 보라나 초록 등 열은 컬러에서 짙은 컬러까지 다양한 색상과 톤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유행색(CFT, 2004, 2005; Fashion Center Korea, 2004, 2005)이면서 난색계 중성색인 보라와 한색계 중성색인 초록을 선정하고 이들 색을 셔츠와 타이에 동일하게 사용하여 동색이 되도록 하였다. 한국표준색표집(공업진흥청/한국방송공사, 1991)에 근거하여 이들 색상을 명도에 변화를 주어 셔츠와 타이 색상이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톤이 되도록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색상과 톤은 <표 1>에 나타내었다. 이렇게 선정된 톤을 셔츠와 타이에 차이 나도록 조합한

<표 1>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색상 \ 톤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보라 (purple)	5P 4/12	5P 8/4	5P 5/4	5P 2/4
초록 (green)	5G 5/10	5G 8/4	5G 6/4	5G 2/4

톤 온 톤 배색의 자극물 32개(2색×4톤×4톤)가 최종적으로 평가에 사용되었으며 이때 배경색은 밝은 회색으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조작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자극물의 조작 분류

색상	셔츠톤	타이톤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V)	(V)	(L)	(D)	(K)
보라 (P)	비비드 (V)	PVV	PVL	PVD	PVK	
	라이트 (L)	PLV	PLL	PLD	PLK	
	덜 (D)	PDV	PDL	PDD	PDK	
	다크 (K)	PKV	PKL	PKD	PKK	
초록 (G)	비비드 (V)	GVV	GVL	GVD	GVK	
	라이트 (L)	GLV	GLL	GLD	GLK	
	덜 (D)	GDV	GDL	GDD	GDK	
	다크 (K)	GKV	GKL	GKD	GKK	

2) 의미미분척도

의미미분척도는 남성복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이은미, 강혜원, 1994; 남미우, 강혜원, 1994; 강경자, 임지영, 1996; 이항미, 김재숙, 1998)에서 사용된 형용사쌍을 참고로 39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나 요인분석결과 최종 27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극물의 인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각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 긍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우측 부정적인 형용사에 -3점을 주었다.

3) 실험설계

본 연구의 피험자는 남·여대학생으로 독립변인은 셔츠와 타이의 색상(보라, 초록)과 셔츠톤(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타이톤(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3원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이들 독립변인에 의해 조합된 32개의 자극물을 16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고 하나의 실험조합에 2장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당 피험자수는 실험조합별로 12명씩 피험자간 설계에 의해 무선 배치되었다. 하나의 실험조합에 포함된 자극물은 색상과 톤의 조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순서효과를 없애

기 위해 지각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의 순서를 달리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평가자는 진주와 진주 인근의 대학교 의상, 미술 관련학과 및 법학, 공학과 남녀 대학생 각 192명씩 38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4년 5월~9월 초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분석방법은 인상차원에 대한 요인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색상과 셔츠톤, 타이톤에 따른 각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최소유의차검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인상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총 27개의 형용사쌍에 대해 $\alpha=.86$ 으로 일관성있게 평가되었으며, 도출된 인상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능력성요인 .915, 활동성요인 .900, 매력성요인 .911, 독특성요인 .748, 온유성요인 .622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인상차원

색상, 셔츠톤, 타이톤, 성별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32개의 자극물에 대한 인상차원을 밝히기 위해 27쌍의 형용사쌍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도형과 Varimax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 아이겐값 1.0이상으로 하여 5개 요인으로 묶이어 선행연구를 참고로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요인 1은 책임감있는-책임감없는, 성실한-성실하지않은, 예의있는-예의없는, 겸손한-자만심이강한, 안정된-불안정한, 고상한-야한, 자제력있는-충동적인, 점잖은-점잖지않은, 이성적인-감성적인의 9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능력성요인"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1.00%였다. 능력성요인의 구성인자는 강경자, 임지영(1996)의 넥타이색과 무늬에서 도출된 인상 중 능력성요인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 셔츠와 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의한 인상차원 요인분석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공통성(h ²)
책임감있는-책임감없는	.861	-.052	.170	.003	.020	.774
성실한-성실하지않은	.847	-.002	.149	-.025	.037	.742
예의있는-예의없는	.831	-.031	.104	-.149	.107	.736
겸손한-자만심이강한	.736	-.063	.064	-.245	.165	.638
안정된-불안정한	.723	-.070	.214	-.129	.143	.610
고상한-아한	.685	-.284	.106	-.207	-.012	.603
자제력있는-충동적인	.661	-.179	.274	-.223	-.016	.594
점잖은-점잖지않은	.644	-.286	.307	-.265	.095	.670
이성적인-감성적인	.592	-.005	.217	-.062	-.224	.452
활동적인-비활동적인	-.142	.791	.080	.213	.065	.702
활력을주는-가라앉게하는	-.091	.772	.118	.171	.124	.663
즐거움-우울한	-.023	.763	.144	.027	.202	.645
젊어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056	.738	.316	.021	-.088	.656
사교적인-비사교적인	-.049	.715	.175	.118	.159	.583
개방적인-보수적인	-.269	.711	.117	.237	-.022	.648
개성적인-개성없는	-.250	.652	.032	.363	-.097	.630
산뜻한-칙칙한	.045	.634	.383	-.056	.165	.580
멋있는-멋없는	.280	.103	.806	-.003	.103	.748
감각있는-감각없는	.197	.253	.804	.074	.125	.770
매력있는-매력없는	.226	.254	.762	.130	.092	.721
보기좋은-보기싫은	.352	.217	.760	-.118	.152	.785
세련된-촌스러운	.238	.384	.739	.014	-.001	.750
강렬한-은은한	-.263	.121	.028	.779	-.070	.696
대담한-소심한	-.165	.270	.079	.719	.112	.636
눈에띄는-무난한	-.370	.362	-.036	.627	-.080	.668
따뜻한-차가운	.040	.092	.169	.090	.853	.775
부드러운-딱딱한	.172	.342	.181	-.175	.683	.676
고유치	5.669	5.078	3.740	2.138	1.527	18.152
전체 변량의 %	20.997	18.806	13.853	7.919	5.656	67.231
공통 변량의 %	31.231	27.972	20.605	11.779	8.413	100.0

요인 2는 활동적인-비활동적인, 활력을주는-가라앉게하는, 즐거움-우울한, 젊어보이는-나이들어보이는, 사교적인-비사교적인, 개방적인-보수적인, 개성적인-개성없는, 산뜻한-칙칙한의 8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활동성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8.81%였다. 이는 의복유형, 의복형태, 색상을 의복단서로 사용한 남미우, 강혜원(1996)의 활동성요인, 최유진, 이명희(2004)의 남성재킷, 와이셔츠, 넥타이색의 이미지 지각에서의 활동성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3은 멋있는-멋없는, 감각있는-감각없는, 매력있는-매력없는, 보기좋은-보기싫은, 세련된-촌스러운의 5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주현, 조궁호(1995)의 의복형태와 색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매력성요인, 김윤경, 강경자(2003)의 의복스타일과 색상, 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력성요인, 이명희(2002)의 의복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매력성 요인과 유사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3.85%였다.

요인 4는 강렬한-은은한, 대담한-소심한, 눈에띄는-무난한의 3개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현시성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7.92%였다. 이는 강경자, 임지영(1996)의 독특성요인, 김윤경, 강경자(2003)의 현시성요인과 유사하였고, 이명희(2002)의 능력요인과도 유사하였다.

요인 5는 따뜻한-차가운, 부드러운-딱딱한의 2개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온유성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5.66%였다. 이는 강경자, 임지영(1996)의 온유성요인과 일치하였고, 이은미, 강혜원(1994)의 정장색, 정장스타일, 넥타이색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평가요인, 이명희(2002)의 화친요인과 비슷하였다.

요인점수들의 결과해석은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능력성 요인에서는 책임감있고 성실하고 예의있고 겸손하고 안정되고 고상한 것으로, 활동성요인에서는 활동적이고 활력을주고 즐겁고 젊어보이는 것으로, 매력성요인에서는 멋있고 감각있고 매력있는 것으로, 현시성요인에서는 강렬하고 대담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온유성요인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5개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7.23%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능력성과 활동성, 매력성은 공통변량의 79.8%를 나타내어 색상과 톤에 의한 착용자의 인상에서 이 세 요인은 중요한 차원인 것을 알 수 있다.

2. 셔츠의 색상과 톤에 따른 타이톤별 인상평가

셔츠와 타이의 색상, 셔츠톤, 타이톤의 조합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을 성별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각자인 남·여의 시각적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각 요인별로 일원변량 분석과 최소유의차검증을 실시하였다.

1) 색상이 보라인 경우 셔츠톤에 따른 타이톤별 인상평가

색상이 보라인 경우 셔츠톤에 따른 타이톤별 인상은 <표 4> - <표 7>에 나타내었다.

먼저 보라색 셔츠톤이 비비드일 경우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 4>에서 보면 5가지 차원 모두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인상차원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능력성차원에서는 타이의 톤에 관계 없이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책임감없고 성실하지 않으며 예의없고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감성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비비드셔츠와 같은 톤인 비비드타이와 조합될 때 이러한 이미지는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활동성차원에서는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남녀 모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남녀 간에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보라셔츠의 톤이 비비드일때 타이톤이 비비드나 다크이면 여자는 긍정적으로 남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이톤이 덜톤이면 남여는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즉 보라 비비드셔츠에 비비드타이나 다크타이를 하면 여자들은 활동적이고 젊어보이고 사교적이고 개성있고 산뜻한 것으로 지각하고 덜톤타이를 하면 비활동적이고 우울하고 나이들어보이고 보수적인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남자들은 반대로 지각하였다. 매력성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톤이 비비드이면 타이톤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멋없고 촌스럽고 보기싫은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에 현시성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강렬하고 대담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온유성차원에서는 타이의 톤 변화에 따라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즉 보라색 비비드 셔츠에 타이톤이 비비드나 다크이면 부정적 이미지로 지각하여 차갑고 딱딱한 것으로, 타이톤이 라이트이면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타이톤이 덜톤이면 여자는 긍정적으로 남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표 4> 보라 셔츠가 비비드톤인 경우 타이톤별 이미지 차이

타이톤 \ 요인	vivid			light			dull			dar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1.39	-1.24	-.573	-.89	-.23	-1.949	-.74	-.70	-.132	-.89	-.70	-.654	1.767	2.742
활동성	.44	-.08	1.210	.47	.00	1.552	-.07	.08	-.383	.26	-.36	1.602	.875	.504
매력성	-.84	-.49	-.779	-.71	-.21	-1.222	-.67	-.25	-1.088	-.37	-.15	-.485	.315	.322
현시성	.26	.27	-.030	.46	.13	.971	.39	.27	.360	.06	.33	-.553	.408	.090
온유성	-.34	-.15	-.458	.16	.04	.346	.12	-.17	.837	-.03	-.11	.173	.537	.150

<표 5> 보라 셔츠가 라이트톤인 경우 타이톤별 이미지 차이

타이톤 요인	vivid			light			dull			dar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24 b	.20	.121	1.34 a	.53	2.648*	1.03 a	.78	.655	.74 ab	.66	.193	3.409*	.952
활동성	-.09	.42 a	-1.433	-.42	-.33 b	-.259	-.39	.09 ab	-1.268	-.02	-.61 b	1.463	.563	3.535*
매력성	.16 ab	.31	-.375	-.33 b	-.44	.234	.43 a	.49	-.205	.79 a	.30	1.244	3.003*	2.525
현시성	-.16	-.30	.349	-.96	-1.06	.246	-1.14	-.93	-.683	-.94	-.70	-.648	2.323	2.185
온유성	.70	.25	1.212	.33	.37	-.128	.59	.99	-1.082	.24	.27	-.072	.584	1.703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그 다음은 보라색 셔츠톤이 라이트일 경우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 5>에서 보면 먼저 능력성차원에서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어떤 타이를 착용하여도 성실하고 예의바르고 안정되고 고상하고 점잖고 이성적인 이미지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라이트셔츠에 타이톤이 라이트나 덜톤일때 이러한 인상을 강하게 지각하고 특히 라이트셔츠에 라이트타이일때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능력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활동성차원에서는 보라 셔츠의 톤이 라이트일 경우 타이톤 변화에 따라 남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남녀 간에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셔츠의 톤이 라이트일때 타이톤이 비비드나 덜톤이면 여자는 부정적으로 남자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이톤이 라이트나 다크톤일때는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즉 보라 라이트 셔츠에 비비드 타이나 덜톤타이를 하면 여자들은 비활동적이고 우울하고 보수적이고 나이들어보인다고 평가한 반면 남자들은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개성있고 젊어보이고 산뜻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하여 셔츠톤이 비비드일 경우와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타이톤이 라이트톤이나 다크톤일때는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매력성차원에서 보라셔츠가 라이트톤일 경우 타이톤에 따라 여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타이톤이 셔츠와 같은 라이트톤일때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하고, 타이톤이 비비드나 덜, 다크톤이면 감각있고 멋있고 세련된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치마지고리의 배색에서 같은 라이트톤일때 한국여대생들은 조화되지않는다고 지각한 선행연구(강경자, 2002)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현시성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은은

하고 소심하고 무난한 것으로 지각하였고, 온유성차원에서는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보라색 라이트셔츠에는 어떤 톤의 타이를 하여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지각되었다.

셔츠색이 보라색 라이트톤에 4가지톤의 타이를 코디할 경우 지각자가 느끼는 이미지는 보라색 비비드톤에 4가지 톤의 타이를 코디할 때와는 아주 상반된 평가를 하여 셔츠톤이 비비드톤이나 라이트톤이나에 따라 정반대의 인상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라색 셔츠톤이 덜일 경우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 6>에서 보면 능력성차원에서는 비비드타이를 제외하고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남녀 모두 책임감있고 점잖고 예의있고 이성적인 인상으로 지각하여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나 타이톤이 비비드일때는 여자는 부정적으로 남자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남녀가 다소 다른 반응을 보였다. 활동성차원에서는 덜톤 보라 셔츠에는 어떠한 톤의 타이를 착용해도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비활동적이고 보수적이고 개성없고 우울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매력성차원에서 남녀 모두 타이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여자는 덜톤의 보라셔츠에 타이를 비비드나 라이트, 다크톤으로 코디하면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남자는 라이트타이와 코디할 때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그러나 덜톤의 타이를 하면 남녀 모두 매력없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반응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현시성차원에서는 여자는 활동성차원과 마찬가지로 타이톤의 변화에 관계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어 소심하고 은은하고 무난한 것으로 평가하여 라이트보다 셔츠

〈표 6〉 보라 셔츠가 탈톤인 경우 타이톤별 이미지 차이

타이톤 요인	vivid			light			dull			dar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05	.28	-.920	.69	.34	.970	.44	.34	.268	1.07	.59	1.618	2.733	.446
활동성	-.49	-.43	-.163	-.83	-.34	-1.222	-.68	-.27	-1.207	-.99	-.62	-1.384	.603	.610
매력성	.00 a	.14 b	-.447	.52 a	.99 a	-1.522	-1.09 b	-.46 b	-2.191*	.00 a	-.05 b	.138	11.639***	5.256**
현시성	-.21	.21 a	-1.143	-.30	-.18 ab	-.319	-.16	-.32 ab	.493	-.35	-.78 b	1.389	.119	3.865*
온유성	-.38	.21	-2.165*	-.04	.09	-.340	-.21	-.05	-.537	-.39	.01	-1.460	.931	.178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 P<.01 *** P<.001

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는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차이를 보여 비비드 타이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온유성차원에서는 같은 탈톤 타이를 제외하고 남자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 비비드, 라이트, 다크타이와 조합하면 여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차갑고 딱딱한 인상으로, 남자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비비드타이와 조합에서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보라색의 라이트 셔츠에 타이톤을 변화시킨 경우와 비교해 보면 인상평가에서 공통성이 나타났는데 보라색 셔츠의 톤이 라이트나 탈톤일 경우 능력성, 매력성, 활동성, 현시성차원에서 비슷한 인상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보라색 셔츠톤이 다크일 경우 타이톤의 변화

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 7>에서 보면 능력성차원에서는 여자는 타이톤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다크톤 보라셔츠는 라이트, 덜, 다크타이와 조합하면 능력있는 인상으로, 비비드타이와 조합하면 반대로 능력없는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남자는 라이트, 다크타이와 조합하면 능력있는 인상으로, 비비드나 탈타이와 조합하면 능력없는 인상으로 지각하였다. 활동성과 온유성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다크톤 보라 셔츠에는 어떤 톤의 타이를 코디하여도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비활동적이고 개성없고 칙칙하고 우울한 인상과 차갑고 딱딱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매력성차원에서는 여자는 타이톤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셔츠톤보다 밝은 라이트나 탈톤의 타이와 조합하면 멋있고 감각있고 매력있는 것으로

〈표 7〉 보라 셔츠가 다크톤인 경우 타이톤별 이미지 차이

타이톤 요인	vivid			light			dull			dar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80 b	-.38	-.870	.27 a	.06	.449	.07 a	-.72	1.690	.40 a	.15	.847	3.329*	1.504
활동성	-.68	-.71	.058	-.13	-.44	.831	-.38	-.46	.157	-.86	-.44	-1.352	1.502	.228
매력성	-.26 b	-.30	.102	.55 a	-.15	1.910	.17 ab	.46	-.506	-.57 b	-.32	-.658	3.152*	1.160
현시성	.68	-.05	1.942	.46	-.12	1.647	.34	-.01	.772	.32	.17	.300	.414	.148
온유성	-.24	-.21	-.083	-.08	-.52	1.164	-.01	-.98	1.868	-.63	-.68	.175	1.181	1.074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지각하였고 선명한 비비드나 셔츠와 같은 다크톤의 타이는 반대로 멋없고 감각없고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반면 남자는 덜톤의 타이만 매력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시성차원에서는 다크톤 보라 셔츠의 경우 비비드, 라이트, 덜톤의 타이와 조합되면 여자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대답하고 강렬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평가한 반면 남자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다크톤 타이와 조합되면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2) 색상이 초록인 경우 셔츠톤에 따른 타이톤별 인상 평가

색상이 초록인 경우 셔츠톤에 따른 타이톤별 인상은 <표 8> - <표 11>에 나타내었다.

먼저 초록색 셔츠톤이 비비드일 경우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 8>에서 보면 능력성차원에서는 비비드 초록 셔츠를 비비드, 라이트, 덜톤 타이와 조합할 경우 남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책임감없고 불안정하고 점잖지않고 감성적인 인상으로 지각하였으나 다크톤 타이와의 조합은 남녀 모두 능력있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며 특히 남자는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활동성차원에서는 타이톤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활동적이고 활력을주고 즐겁고 젊어보이고 산뜻하고 개성적인 인상으로 지각하여 타이톤보다 셔츠톤의 영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매력성차원에서는 여자는 타이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초록색 비비드 셔츠와 덜톤타이의 조합을 제외한 비비드, 라이트, 다크톤 타이의 조합은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중에서도 셔츠와 같은 비비드타이의

조합이 가장 멋없고 감각없고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비비드셔츠와 다크타이의 조합을 여자는 매력없는 것으로, 남자는 매력있는 것으로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현시성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타이톤에 관계없이 긍정적으로 지각되어 강렬하고 대답하고 눈에 띄는 인상으로 평가하여 타이톤보다 셔츠톤의 영향이 부정적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온유성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초록 비비드 셔츠를 덜타이와 조합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다크타이와 조합하면 차갑고 딱딱한 인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비비드나 라이트타이와 조합하면 여자는 부정적으로, 남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초록색 셔츠톤이 라이트일 경우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 9>에서 보면 능력성차원에서는 초록 라이트셔츠를 비비드, 라이트타이와 조합할 경우 남녀 차이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다크톤 타이와 조합될때는 남녀 간에 차이를 보여 여자는 능력있는 것으로, 남자는 능력없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활동성차원에서는 남녀 모두 타이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셔츠톤이 라이트일 때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지만 특히 여자들은 비비드나 덜톤의 타이와 코디될때 이러한 인상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초록색 의복은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2002, 주소현, 이경희)와 유행색상은 면접이나 정장에서 더 활동적으로 지각한 남미우, 강혜원(199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준다. 그러나 라이트 보라 셔츠와 타이의 톤조합에서 활동성차원에 부정적으로 지각된 것과 비교하면 상반된 이미지로 지각되어 활동적인 인상은 톤보다 색상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력성차원에서 여자들은 타이톤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녀 모두 초록 라이트 셔츠에 비비드, 덜톤의 타이를 조합하면 긍정적으로, 라이트나 다크

<표 8> 초록 셔츠가 비비드톤인 경우 타이톤별 이미지 차이

타이톤 요인	vivid			light			dull			dar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75	-.64 b	-.371	-.59	-.30 b	-1.227	-.42	-.21 b	-.423	.12	.57 a	-1.168	2.486	4.357*
활동성	.22	.00	.448	.90	.49	1.319	.79	.23	1.521	.71	.67	.118	1.366	1.380
매력성	-1.27 b	-.57	-1.782	-.70 ab	-.15	-1.354	.01 a	-.19	.510	-1.11 b	.16	-3.239**	4.614**	.870
현시성	.49	.31	.448	.15	.02	.452	.22	.28	-.241	.39	.02	1.029	.517	.396
온유성	-.13	.43	-1.139	-.08	.43	-1.660	.19	.14	.126	-.41	-.49	.256	1.142	2.405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 P<.01

<표 9> 초록 셔츠가 라이트톤인 경우 타이톤별 이미지 차이

타이톤 요인	vivid			light			dull			dar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04	-.55	1.334	-.78	-.30	-1.020	-.39	.04	-1.300	.36	-.33	2.146*	2.813	1.088
활동성	.91	.60	.901	.75	.94	-.712	.91	.61	.868	.82	.29	1.115	.100	.841
매력성	.03 ab	.41	-1.071	-.94 c	-.24	-2.258*	.62 a	.37	.871	-.35 bc	-.19	-.431	6.670**	2.292
현시성	.28	-.28	2.104*	.08	-.25	.733	.04	-.12	.465	.26	-.56	2.072*	.162	.676
온유성	.60 b	-.37 b	2.959**	.18	.26 ab	-.179	.46	.75 a	-.981	-.11	-.02 b	-.257	1.389	3.696*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 P<.01

톤을 코디하면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멋없고 촌스럽고 매력없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타이가 라이트톤일때 남여간에 차이를 보여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하여 한국여대생들은 라이트 초록 치마와 라이트 초록 저고리를 조합하지않는다고 한 선행연구(강경자, 2002)와 유사하였다. 현시성차원에서는 초록 라이트 셔츠에 타이톤을 변화시켜 조합할 경우 타이톤에 상관없이 여자는 긍정적 이미지 즉 강렬하고 눈에 띄고 대담한 이미지로 지각하였으나 남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은은하고 무난하고 소심한 이미지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초록 라이트 셔츠에 비비드나 다크타이를 코디할 때 남여 간에 이미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라색의 라이트셔츠에 어떤 톤의 타이를 조합하여도 남여 모두 현시적 이미지에서 부정적으로 지각된 것과 비교해 보면 남자는 보라색 초록이든 색상에 관계없이 셔츠톤이 라이트일때는 어떤 톤의 타이를 착용하여도 은은하고 소심하고 무난하다고 평가한 반면 여자는 같은 라이트톤 셔츠라도 보라색은 은은하고 무난한 반면 초록색은 강렬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지각하여 현시성 이미지 지각에는 남자의 경우 톤의 영향이, 여자의 경우 색상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온유성차원에서는 초록 라이트 셔츠를 라이트나 델타이와 조합하면 남여 모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다크타이와 조합하면 남여 모두 차갑고 딱딱한 인상으로 평가하였으나 비비드타이와 조합한 경우는 여자는 긍정적으로, 남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여 남여가 상반된 평가를 하였으며 남자는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초록색 셔츠톤이 델일 경우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 10>에서 보면 먼저 능력성차원에서

는 남자는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델톤의 초록 셔츠를 다크톤의 타이와 조합하면 책임감있고 성실하고 안정되고 개성적이고 이성적인 인상으로 지각되고, 비비드, 라이트, 델톤의 타이와 조합하면 책임감없고 성실하지않고 불안정하고 점잖지않고 야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여자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활동성차원에서는 남여 모두 타이톤에 상관없이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활동적이고 즐겁고 젊어보이고 개성적이고 산뜻한 인상으로 평가하여 보라색 델톤 셔츠가 타이톤에 상관없이 부정적으로 지각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즉 활동적인 인상은 셔츠가 델톤일때는 색상의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록색 의복이나 유행색상의 정장이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주소현, 이경희,2002; 남미우, 강혜원,199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매력성차원에서 여자는 델톤 초록 셔츠에 타이의 톤을 변화시킬 경우 타이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크타이와 조합하면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멋있고 감각있고 매력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남자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남여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색은 델셔츠와 라이트 타이, 델셔츠와 델타이의 조합으로 델셔츠와 라이트 타이를 여자는 매력없는 것으로 남자는 매력있는 것으로, 델셔츠와 델타이는 남여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였으나 남자가 훨씬 더 매력없는 것으로 평가하여 남여 간에 매력성 평가에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시성차원에서는 여자는 델타이를, 남자는 라이트타이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강렬하고 대담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온유성차원에서 여자는 델톤 초록 셔츠에 비비드나 라이트타이를 착용할 경우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표 10〉 초록 셔츠가 덜톤인 경우 타이톤별 이미지 차이

타이톤 요인	vivid			light			dull			dar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49	-.80 b	1.146	-.54	-.88 b	1.344	-.42	-.25 ab	-.491	-.33	.24 a	-1.826	.280	4.461**
활동성	.57	.19	1.087	.69	.54	.419	.11	.17	-.211	.51	.32	.636	1.127	.514
매력성	-.46 a	-.11	-.845	-.44 a	.54	-2.618*	-1.30 b	-.32	-2.911**	.14 a	.29	-.356	4.923**	1.931
현시성	.65	.30	.905	.04	-.32	.857	-.24	.00	-.729	.18	.65	-1.503	2.671	2.028
온유성	.49 ab	.06	1.243	.78 a	.15	2.029	-.05 bc	.41	-1.293	-.24 c	.34	-2.020	3.846*	.601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 P<.01

지각하고 덜이나 다크타이는 차갑고 딱딱한 인상으로 지각하여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남자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지각하였다.

다음으로 초록색 셔츠톤이 다크일 경우 타이톤의 변화에 따른 인상차이를 <표 11>에서 보면 먼저 능력성차원에서 남자는 다크 초록 셔츠와 덜톤 타이의 조합을 제외하고 남여 모두 타이톤에 상관없이 능력있는 인상으로 평가하였다. 보라색의 다크톤 셔츠와 비비드톤 타이를 남여 모두 능력없는 것으로 지각한 것에 비해 초록색 다크톤 셔츠와 비비드타이의 조합은 능력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색상간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또한 남여 모두 보라색 초록이든 색상에 상관없이 다크톤 셔츠와 덜톤타이의 조합을 여자는 긍정적으로 남자는 부정적으로 즉 능력없는

인상으로 지각하여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활동성차원에서 다크 초록 셔츠톤은 비비드나 라이트, 덜톤과는 다르게 남자는 타이톤에 상관없이 모두 부정적으로 지각하는데 반해 여자는 타이톤 변화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어 다크 초록 셔츠와 라이트나 다크타이의 조합은 부정적으로 지각되고 비비드나 덜톤 타이와의 조합을 남자는 부정적으로, 여자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매력성차원에서는 여자, 남자 모두 타이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여 모두 다크 초록 셔츠와 덜타이의 조합은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같은 톤인 다크타이와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같은 톤조합인 덜톤 초록 셔츠와 덜톤 타이는 매력이 없고 다크톤 타이와는 매력있는 것으로 지각한 것과 일치하여 덜톤 셔츠와 다크타이, 또는 다크셔츠와 덜타이의 배색은 멋있고 세련되고 매력있

〈표 11〉 초록 셔츠가 다크톤인 경우 타이톤별 이미지 차이

타이톤 요인	vivid			light			dull			dark			F값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t	여자	남자
능력성	.24	.19	.135	.11	.10	.016	.27	-.07	1.135	.34	.20	.395	.120	.226
활동성	.31 a	-.24	1.596	-.59 b	-.42	-.391	.20 a	-.57	2.213	-.98 b	-.79	-.630	8.407***	.644
매력성	-.50 b	.02 a	-1.393	-1.02 b	-.21 a	-2.578*	.32 a	.36 a	-.113	-.49 b	-1.01 b	1.425	4.886**	4.100*
현시성	.11	.21	-.217	.41	.20	.598	-.35	.19	-1.510	-.17	-.01	-.360	1.304	.106
온유성	-.63	-.17	-1.061	-.27	-.55	1.032	-.24	.07	-1.004	-.50	-.06	-1.096	.512	1.412

L.S.D 검정결과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a>b>c로 표시
* P<.05 ** P<.01 *** P<.001

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여대생들이 초록 털 치마와 다크저고리, 초록 다크 치마와 덜저고리는 잘 조화된다고 한 선행연구(강경자, 2002)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특히 다크 초록 셔츠와 라이트타이의 조합은 남녀 모두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하였으나 여자가 훨씬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여 멋없고 감각없고 매력없는 인상으로 평가하였다. 현시성차원에서는 다크 초록 셔츠와 비비드나 라이트톤의 타이와 조합하면 긍정적으로 덜이나 다크타이와 조합하면 부정적으로 지각하였고 온유성 차원에서는 남자가 다크 초록 셔츠와 덜타이와 조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타이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차갑고 딱딱한 인상으로 지각하였으며 셔츠가 보라색의 다크톤일때와 비슷한 평가를 하였다. 이는 셔츠의 색상이나 타이의 톤변화에 상관없이 셔츠톤이 온유성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셔츠와 타이의 배색이 톤 온 톤 배색이 되도록 통제된 후 셔츠·타이의 색상, 셔츠톤, 타이톤에 따른 남성복 착용자의 인상을 평가하기 위하여 27쌍의 형용사 쌍을 요인분석하여 인상차원을 밝히고 셔츠와 타이의 톤조합에 따른 인상차이를 알아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셔츠와 타이 색상, 셔츠톤, 타이톤에 의한 의복 착용자의 인상구조를 요인분석한 결과 능력성 요인, 활동성 요인, 매력성 요인, 현시성 요인, 온유성 요인의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2. 보라색 셔츠와 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따른 인상차이를 살펴보면

- 능력성 요인에는 라이트 셔츠에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타이, 덜톤 셔츠에 라이트, 덜, 다크 타이, 다크 셔츠에 라이트, 다크 타이의 착용자를 남녀 모두 능력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비비드 셔츠에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타이, 다크톤 셔츠에 비비드 타이를 남녀 모두 능력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자는 셔츠톤이 라이트나 다크톤일 때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셔츠와 타이의 배색이 동일한 라이트톤일 때 여자는 남자보다 긍정적, 즉 매우 매력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활동성 요인에서는 비비드셔츠에 라이트타이 착용자를 남녀 모두 활동적인 인상으로 평가하였고, 비비드나

다크톤의 타이를 여자는 활동적으로 남자는 비활동적으로 평가하였다. 라이트 셔츠에 비비드, 덜 타이의 배색을 여자는 부정적으로 남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덜이나 다크톤 셔츠에는 4가지 톤 중 어떤 타이와 배색해도 남녀 모두 비활동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남자의 경우 셔츠가 라이트톤일 때는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매력성 요인에서는 라이트 셔츠에 비비드, 덜, 다크 타이, 덜톤 셔츠에 비비드, 라이트 타이, 다크 셔츠에는 라이트 타이의 배색 착용자를 긍정적으로, 즉 매력있는 것으로, 비비드 셔츠에서는 타이의 톤변화에 상관없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특히 여자는 셔츠톤이 라이트나 덜, 다크톤일 때, 남자는 덜톤일 때,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셔츠와 타이의 배색이 동일한 덜톤일 때 여자는 남자보다 매우 부정적, 즉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 현시성 요인에서는 타이톤의 변화에 상관없이 셔츠톤이 비비드일 때는 긍정적으로, 라이트, 덜톤일 때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다크셔츠에 비비드, 라이트, 덜 타이의 배색을 여자는 긍정적으로, 남자는 부정적으로, 다크 타이와의 배색은 남녀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남자는 셔츠톤이 덜톤일 때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온유성 요인에서는 타이의 톤변화에 상관없이 라이트톤 셔츠는 긍정적, 즉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다크톤 셔츠는 부정적, 즉 차갑고 딱딱한 인상으로 평가하여 남녀 모두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여자는 비비드셔츠와 라이트, 덜 타이, 남자는 비비드셔츠와 라이트타이, 덜 셔츠와 비비드, 라이트, 다크 타이의 배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덜셔츠와 비비드타이의 배색에 대한 평가는 남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초록색 셔츠와 타이의 톤 온 톤 배색에 따른 인상차이를 보면

- 능력성 요인에서는 남녀 모두 비비드 셔츠에 덜타이, 라이트셔츠에 덜타이, 다크셔츠에 비비드, 라이트, 다크 타이의 조합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여자는 다크셔츠에 덜타이를, 남자는 덜셔츠에 다크타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능력있는 이미지로 평가하고 특히 남자의 경우 셔츠톤이 비비드나 라이트톤일 때는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활동성 요인에서는 셔츠톤이 다크톤을 제외한 비비드, 라이트 또는 덜톤이면 타이의 톤변화에 상관없이 활동적인 인상으로 지각되어 톤보다 색상의 이미지가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크 셔츠에 비비

드, 덜 타이의 조합을 여자는 긍정적으로, 남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남여 모두 다크 셔츠에 라이트, 다크 타이의 조합은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여자는 셔츠톤이 다크일 때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매력성 요인에서는 비비드셔츠에 여자는 덜타이, 남자는 다크타이의 조합이 매력있고 라이트셔츠와 비비드, 덜 타이, 덜셔츠와 다크타이, 다크셔츠와 덜타이의 조합을 남여 모두 매력있다고 평가하였다. 여자는 비비드셔츠에 덜타이, 남자는 비비드셔츠에 다크타이, 덜셔츠에 라이트타이, 다크셔츠에 비비드타이의 착용자가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였다. 대체로 초록색 톤 온 톤 배색은 매력적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 모두에서 타이의 톤변화에 따라 여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남자는 셔츠톤이 다크일 때만 차이를 보였다.

- 현시성 요인에서는 비비드셔츠는 타이톤의 변화에 관계없이 남여 모두 현시성이 강한 것으로 지각하고 라이트셔츠에는 타이톤에 관계없이 여자는 긍정적으로, 남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특히 라이트 셔츠에 비비드나 다크 타이의 배색에서는 남여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덜톤 셔츠에 비비드, 다크톤 타이는 남여 모두 긍정적으로 라이트 타이와의 조합을 여자는 긍정적으로, 남자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고, 다크톤 셔츠에 비비드, 라이트 타이의 조합은 현시적인 이미지로, 다크 타이의 배색은 부정적으로, 즉 은은하고 소심하고 무난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 온유성 요인에서는 비비드 셔츠에 비비드, 라이트 타이의 조합을 여자는 부정적으로 즉 차갑고 딱딱한 이미지로, 남자는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상반된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남여 모두 덜 타이와의 배색은 긍정적으로 다크톤 타이와의 배색은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라이트 셔츠에 라이트, 덜톤 타이, 덜톤 셔츠에 비비드, 라이트 타이를 긍정적으로, 다크톤 셔츠에 비비드, 라이트, 다크톤 타이의 배색을 부정적으로 지각하여 남여 모두 공통된 평가를 하였다. 온유성 이미지는 특히 라이트 셔츠에 비비드 타이의 배색을 남자는 여자와 상반된 평가를 하였으며, 특히 남자는 타이톤의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동일 색상의 톤차이에 따른 톤 온 톤 배색의 착용자에 대한 인상차이를 살펴본 결과 비비드톤의 셔츠 착용자는 초록이든 보라이든 색상에 관계없이 활동적이고 현시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능력없고, 매력없는, 그리고 차갑고 딱딱한 인상으로 평가하여 타이톤이나 색상보다

셔츠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라이트톤의 셔츠 착용자를 보면 인상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셔츠 색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보라색 셔츠 착용자는 능력있고 비활동적이고 은은하고 무난하고 소심한 이미지로 평가된 반면, 초록색 셔츠 착용자는 상반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색상의 영향에 관계없이 매력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덜톤의 셔츠 착용자도 라이트톤 셔츠 착용시와 유사한 반응을 보였으며 매력성과 온유성에서 타이톤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톤의 셔츠 착용자는 셔츠 색상에 따라 능력성과 활동성에서 차이를 보여 보라 다크톤 착용자는 능력있고 활동적인데 반해 초록 다크톤 착용자는 상반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셔츠 색상에 관계없이 매력있고 현시성이 강하고, 차갑고 딱딱한 인상으로 평가되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톤 온 톤 배색으로 구성된 셔츠와 타이의 배색방법에 따른 착용자의 인상을 성별로 평가한 결과 부분적으로 남여 간에 차이를 나타낸 배색이 있으나 대체로 남여가 유사한 평가를 하였다. 셔츠와 타이라는 동일한 형태라도 색상에 따라 인상이 다소 다르게 평가되고 셔츠톤과 타이톤의 조합, 즉 톤 온 톤 배색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은 인상차원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므로 셔 색상, 셔츠톤, 타이톤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각각 단계에서 통합되어 인상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독립변인들의 조합상태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의 연출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셔츠와 타이의 배색에서 색상은 동일하지만 톤을 달리한 톤조합에 따른 남성복의 인상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배색유형을 달리하여 톤 인 톤 배색, 콘트라스트 배색, 무채색과 유채색의 배색, 무채색간의 배색에 대한 연구도 계속해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획일화된 남성복 시장의 상품기획과 코드 네이션에 구체적인 색채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인상 평가, 톤 온 톤 배색, 셔츠, 타이

참 고 문 헌

-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1보)-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4), 731-742.
- 강경자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 지각반응 연구(2)-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25(4), 443-453.
- 강경자 (2004)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3보)-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 한국 의류학회지, 28(7), 962-973.
- 강경자, 추미선, 팽숙경 (2005)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복배색의 조화감 비교 연구- 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5), 107-115.
-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22(3), 312-320.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27(3,4), 395-406.
- 김은경, 김영인 (1999) 보라색의 유래 및 이미지의 고찰. 한국디자인학회지, 24(3), 226-234.
- 남미우, 강혜원 (1994) 상황, 의복단서 및 관찰자 변인이 남자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18(3), 311-326.
- 마켓컬러, 2004, from <http://cft.or.kr/market/>
- 마켓컬러, 2005, from <http://cft.or.kr/market/>
- 박상호 (1994) 색채계획. 서울, 도서출판효성.
- 박은주 (1989)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교문사.
- 사이즈코리아 (1997). 국민표준체위조사. <http://sizekorea.ats.go.kr/>.
- 실용한국표준색표집 (1991). 공업진흥청/ 한국방송공사.
- 이명희 (2002) 의복유형 및 배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26(3/4), 503-514.
-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 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22(8), 1111-1121.
- 이은미, 강혜원 (1994) 의복단서 및 착용자 연령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남성정장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18(2), 197-210.
- 이인자, 이경희, 신효정 (2003) 의상심리. 서울, 교문사.
- 이주현, 강혜원 (1995) 의복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Dress 및 Pants, Blous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19(6), 984-994.
- 이주현, 조금호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19(5), 747-764.
- 이향미, 김재숙 (1998) 남자 고등학교 교사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의복 격식차림, 색 및 맥락의 영향-대전지역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22(3), 312-320.
- 이혜숙, 김재숙 (1996) 의복 디자인요소의 이미지 지각에 대한 연구-색, 무늬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 복식문화연구, 4(3), 349-359.
- 주소현, 이경희 (2002). 현대패션에 표현된 색채이미지 연구. 02 한국 의류학회지 춘계학술대회지, 29.
- 차미승 (1992) 의복형태와 색채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와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경, 강경자 (2004) 색상과 톤, 스커트 길이·폭의 변화가 원피스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평가. 한국 의류산업학회지, 6(4), 447-454.
- 최유진, 이명희 (2004) 남성의 재킷, 와이셔츠, 넥타이 색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연구. 복식, 54(6), 131-140.
- 추선형, 김영인 (1997) 녹색을 중심으로한 복식의 색채계획. 복식, 31, 33-47.
- 트렌드컬러, 2004, from <http://fck.or.kr/tr/color/>
- 트렌드컬러, 2005, from <http://fck.or.kr/tr/color/>
- 팽숙경, 강경자 (2004) 의복의 톤조합과 착용자의 체형에 따른 인상평가(제1보). 한국생활과학회지, 13(6), 1007-1021.
- 小林重順 (1990) *カラ-イメ-ジスケル*. 講談社.
- Asch, S. E. (1946)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258-290.
- Baer, M. (1979) Visual Recall of Dress Design Determined by Perceptual Sty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5), 292-303.
- Delong, MR (1968) Analysis of Costume Visual Form.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6, 784-788.
- Kobayashi (1981) The Aim and Method of the Color Image Scale. *Color Research and Application*, 6(2), 93-106.

(2005. 07. 25 접수; 2005. 10. 10 채택)